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머리카락이 여전히 자라다 [사사기 16:1-22]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1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2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3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4 이 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5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피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곤고케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일천 일백을 네게 주리라 6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곤고케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7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8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9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칙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끊음 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10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11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12 들릴라가 새 줄을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의 줄 끊기를 실을 끊음 같이 하였고 그 때에도 사람이 내실에 매복하였더라 13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14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틀의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내니라 15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세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16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17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18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19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20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21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22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았습니다. 단지 매춘부와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블레셋의 요새인 가자로의 여행했습니다. 그는 그 곳을 떠날 때 성문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삼손의 비극을 더욱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순결함이 없는 권세, 자제력 없는 강인함을 가졌으며 겉모습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20년은 —20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이십년을 지내었더라 (사사기 15:20)— 이기적인

죄악의 20년이었습니다. 외적인 성공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더욱 오만하고 안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많은 축복을 받을수록 더 쉽게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과 그 분께서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되심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삼손은 영광의 불꽃 속에 가자를 떠났지만 완전한 굴욕과 수치를 안고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21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사사기 16:21). 삼손이 데릴라를 만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데릴라에게 뇌물을 제공합니다. 유혹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로부터 도망치기보다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십시오. **“생각은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을 형성하고, 그리고 성격은 결국 운명이 된다.”** 죄는 우리에게 추악하고 냄새나고 파괴적인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훌륭하고 흥미롭고 성취감을 주는 것처럼 가장합니다! 사탄이 와서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당신이 예수님을 위해 한 일을 없애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효율성을 산산조각 내고 싶습니다! 관심이 있나요?” 우리 중 누구도 사탄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유혹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육신의 정욕과 악마의 유혹을 마주치게 됩니다. 오스카 와일드: “나는 유혹 외에는 무엇이든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진리가 여전히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13) 초기 기독교 저술가인 암브로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삼손은 용감해서 사자의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랑을 목 졸라 죽일 순 없었습니다. 그는 원수들의 족쇄를 끊을 수 있었지만 자기 자신의 정욕의 줄은 끊지 못했습니다. 그는 농작물을 불태웠듯이 한 여인을 향한 타오르는 욕정으로 인해 자신의 덕행의 열매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시작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결국 데릴라는 게임에 지친 척했습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삼손은 여기에 굴복하여 말 그대로 그의 마음을 그녀에게 다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유혹에서 놀고 싶다면 결국 유혹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위험보다 즐거움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꼬리에는 항상 독침이 따르게 됩니다. 악마와 장난을 치는 것은 러시아 룰렛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아쇠엔 총알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삼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은 교훈을 얻을 때까지 물러나 계십니다. 그의 진술은 확실하게 맞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뻗었습니다. (그의 유혹의 근원??) 그를 가자지구로 끌고 갔습니다... 노예의 일. 이것은 성경의 두 가지 위대한 경고가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18), “네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 결코 하나님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큰 구원을 이루셨지만, 히브리서 2장 3a절은 *“3a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17a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요한계시록 3:17a)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b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별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요한계시록 3:17b)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급받는 희망은 오직 그분이 우리의 발을 굳건한 땅에 붙드실 때에만 세워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동기, 마음 그리고 영혼이 되실 때 우리의 행위는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분의 보좌로 돌아오십시오.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정기적으로 그분의 생명수를 마시고 활력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22절은 희망의 빛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죄에서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시험의 근원인 그의 눈을 제거하셨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